동의신경정신과 학회지
J. of Oriental Neuropsychiatry
Vol. 16. No. 2, 2005

婦人 정신장애에 대한 연구 Ⅱ-치료 중심으로

김근우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신경정신과

A study for Mental disorder of Women Ⅱ
-focus on the cause of treatment-

Kim Geun Woo
Dept.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Abstract

Objects : This study was aimed to investigate the treatment on Mental disorder of Women.

Methods : Research data is based on Buindaejoenyangbang and Dong-uibogam. And study the treatment in Mental disorder of Women.

Results :

1. Owing to women's physiological extraordinary nature, Mental disorder of Women's treatment does not match Dongyipogam's about the same symptoms.
2. Most of happing the symptom is due to blood Wind(four flavors) and deficiency of the Heart, treatments are dispelling Wind, tonifying blood of the Heart and calming the spirit.
3. At postpartum, Mental disorder of Women's causes are deteriorating blood vanquished blood and external affections with a blood deficiency from the loss of blood, treatments are tonifying the blood, expel Wind and clear Cold and remove blood stagnation to promote regeneration

◆ 투고:10/20, 수정:11/9, 채택:11/9
* 위 논문은 동국대학교 전문학술지 게재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짐
교신저자 : 김근우,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87-2번지 동국대 한방병원 신경정신과
Tel. 031-710-3740E-mail : kgwoo86@dongguk.ac.kr

Conclusion :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extraordinary nature of the circumstances due to women′ specific pathology must be considered.

Key words : Women′s physiological extraordinary nature, Mental disorder of women, Buindaejoenyangbang, Dong-uibogam

Ⅰ. 緖 論

《婦人大全良方》[1] '蓋女子嗜欲多於丈夫, 感病倍於男子, 加之慈戀, 愛憎, 嫉妬, 憂恚, 染着堅牢, 情不自抑, 所以爲病根深, 治之難瘥.'라 하여 여성은 질환발생에 있어 정서적인 요인 즉 점점 깊어지는 사랑의 감정, 愛憎, 질투, 근심과 분노 등과 같은 것들이 질병의 발생에 큰 영향을 주며, 그 치료에 있어서도 정서적 요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나, 감정에 대한 치료가 어려우므로 여성에 대한 질환 치료 또한 남성보다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위의 내용은 婦人 정신장애의 치료에 있어서도 해당되는 내용으로, 실제 성에 따른 정신장애 유병률의 차이에서도 여성이 높다는 것과도 일치하는 내용이다[2].

그리고 실제 임상에서 정서적인 요인이 관여된 婦人科 心身疾患의 치료에 있어, 신체적인 측면과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치료가 잘 조화를 이룰 때가 가장 이상적인 치료라 할 수 있다 하며 좋은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 필요한 신체적 치료, 생활지도, 상담- 특히 중요한 내용으로 환자와 치료자와의 인간적인 결합을 통해 환자 자신이 여태까지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고통스런 내용들을 해결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느끼게 해주는 것-, 對症治療에 해당되는 약물치료, 심리요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3]. 즉, 오히려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에 대한 약물치료보다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치료의 핵심으로 보는 과정은 한의학에서도 정신치료적인 내용의 醫案에 있어 婦人이 치료의 대상으로 많이 등장하는 것과는 동일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4].

이에 婦人 정신관련 장애의 치료에 대하여, 한국 한의학을 대표하는 임상서적인 東醫寶鑑[5]과 宋代 陳自明의 著作으로 한의학에 있어 최초의 거의 완전한 婦産科專書로 후세에 큰 영향을 끼친[6] 婦人大全良方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약간의 지견을 얻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Ⅱ 硏究方法

1. 연구서적에 있어 일반적 정신과 영역 질환의 기준은 東醫寶鑑으로 東醫寶鑑國譯委員會서 편찬한 것을, 婦人에서 나타나는 정신과 질환은 婦人大全良方으로 김동일 외 2인이 譯한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婦人大全良方은 이하 '良方'으로 간략히 稱한다.
2. 연구 대상 질병 분류에 있어 良方의 調經, 衆疾, 求嗣, 胎教, 姙娠, 坐月, 産難, 産後로 구분한 婦人 생리특성과 임신을 기준한 분류방법과 동의보감의 일반적 증후분류 기준에 있어, 본 연구는 婦人과 질환이 연구대

상이 아니고 정신과 질환이 연구대상의 중심이 되기에 동의보감에서의 증후분류를 기준으로 질병을 분류한다.

3. 동의보감 婦人篇의 증후와 良方의 증후가 동일하면 良方의 것을 기준으로 한다.
4. 본론 및 고찰을 기술함에 있어, 동의보감은 治法 및 治方名만 기재를 하고 良方은 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기술한다.
5. 본론 및 고찰에서의 연구순서는 동의보감, 良方, 두 서적의 비교고찰의 순으로 한다.

Ⅲ 本論 및 考察

1. 驚悸

○ 三因曰, 驚悸, 事有所大驚而成者, 名曰心驚膽懾, 病在心膽經, 其脈大動, 宜朱砂安神丸, 鎭心丹, 加味溫膽湯.

○ 丹溪曰, 驚悸者, 有時而作, 血虛者, 宜朱砂安神丸. 有痰者, 宜加味定志丸.

○ 入門曰, 驚悸, 因思慮過度, 及大驚恐而作, 甚則, 心跳欲厥, 宜淸心補血湯, 辰砂妙香散. 氣血俱虛, 宜養心湯. 時作時止者, 痰因火動, 二陳湯 加枳實 麥門冬 竹茹 黃蓮 梔子 人蔘 白朮 當歸 烏梅 生薑三片 大棗一枚 煎入竹瀝三匙 朱砂末三分 調服.

○ 驚悸當補血安神, 宜靜神丹, 寧志元, 養血安神湯, 朱砂膏. 若氣鬱驚悸 宜交感丹, 加味四七湯.

동의보감에서의 驚悸 치료는 憂愁思慮나 驚恐으로 인해 心血이 虛하였을 때 驚悸가 생기는 것으로 보고 朱砂安神丸, 鎭心丹, 淸心補血湯, 辰砂妙香散, 養心湯, 靜神丹, 寧志元, 養血安神湯 등의 처방으로 心血을 補하여 마음을 안정시키며 加味溫膽湯, 加味定志丸, 加味四七湯 등의 처방으로 心竅에 入한 痰飮을 제거하고, 交感丹으로 氣鬱을 解鬱시켜 치료한다. 대체적인 약물 구성을 보면 心을 補함으로 해서 神을 안정시키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 **婦人血風心神驚悸方論**

○ 茯神散; 治婦人血風, 五臟大虛, 驚悸, 安神定志.

茯神 人參 龍齒 獨活 酸棗仁 防風 遠志 桂心 細辛 白朮 甘草 乾薑.

○ 龍齒圓; 治婦人血風上攻, 心神恍惚, 驚悸, 睡臥不.

龍齒 茯神 朱砂 人參 當歸 天麻 犀角屑 檳榔 防風 生乾地黃 遠志 赤箭 麝香.

☞ **婦人失血過多心神不安方論**

○ 寧志膏; 治婦人因失血過多, 心神不安, 言語失常, 不得睡.

辰砂研 酸棗仁炒 人參 白茯神 琥珀 滴乳.

☞ **産後臟虛心神驚悸方論**

○ 七寶散; 療初産後服之調和血氣, 補虛安神, 壓驚悸.

辰砂研 桂心 當歸 川芎 人參 白茯苓 羚羊角 乾薑.

○ 治産後臟虛, 心中驚悸, 志意不安, 言語錯亂, 不自覺知.

茯神 遠志 人蔘 麥門冬 甘草 生地黃 當歸 龍齒 桂心 白芍藥 羚羊角.

○ 治産後心虛驚悸, 神思不安.

龍齒 黃芪 白薇 生地黃各一兩 人蔘 茯神 遠志 羌活 甘草 桂心 防風.

○ 治産後臟腑虛, 心怔驚悸, 言語錯亂.

麥門冬 人蔘 牛黃 白薇 茯神 獨活 遠志 生地黃 硃砂飛 防風 天竺黃 甘草 龍齒 龍腦 麝香.

○ 療血虛多驚, 及産後敗血諸疾.

辰砂 琥珀 沒藥 當歸.

○ 産後驚風, 亂道言語, 如見鬼狀, 精神不定者.

硃砂酒調下 龍虎丹 三圓作一服 兼琥珀地黃圓服之.

○ 琥珀地黃圓方

琥珀別研 延胡索糯米同炒赤 去米 當歸 各一兩 蒲黃四兩 炒香 生地黃研裂汁 留滓 生薑各三斤.

良方에서의 驚悸는 血風, 失血過多 및 産後 臟虛의 원인이 된 3가지로 나누어 치료하고 있다. 心血이 虛한 상태에서 入風邪하여 생긴 血風으로 인한 驚悸는 心血을 補하는 茯神散을 쓰며 정신증상까지 보이면 龍齒圓를 쓴다. 失血過多에 의한 心神不安으로 인한 驚悸에는 寧志膏를 쓴다. 그리고 産後臟虛로 인한 驚悸에는 七寶散을 비롯한 여러 처방이 사용되는데, 각 처방의 구성약물을 보면 대부분 心에 歸經하는 약물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産後臟虛의 臟은 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 良方의 驚悸는 모두 虛함이 원인이며, 그 치료목표는 특히 心을 중심으로 그 虛 함을 치료한다.

동의보감과 비교 고찰하였을 때, 동의보감은 心을 기준으로 血을 補하고 祛痰하거나 또는 解鬱시키는 치료를 한데 비하여, 良方은 補心安神시키는 처방 및 약물구성으로 驚悸를 치료한다. 良方에서는 동의보감에서와 같이 痰飮이나 氣鬱에 대한 치료와 같이 다양한 치법은 없고 주로 補法에 의한 치료가 대부분이다.

2. 癲狂

○ 火盛癲狂, 宜當歸承氣湯, 三黃瀉心湯, 黃蓮瀉心湯, 牛黃瀉心湯.

○ 痰火鬱塞癲狂, 宜牛黃淸心元, 淸心滾痰丸.

○ 風痰迷心癲狂, 宜鐵粉散, 鬱金丸, 通泄散.

○ 因驚喪心亡魂失魄爲癲狂, 宜鎭心丹, 抱膽丸, 葉氏雄朱丸, 一醉膏.

○ 勞神過度, 甚至, 癲狂, 宜辰砂寧志丸, 寧志化痰湯, 養血淸心湯, 牛車肉.

○ 癲狂不得睡臥, 宜寧志膏, 辰砂散.

☞ **大下愈狂**

○ 一人病陽厥, 狂怒罵詈, 或歌或哭..... 易老曰, 奪食則已, 因不與食, 又以大承氣湯, 下之五七行, 瀉渣穢數斗, 身溫脈生而愈.

○ 一叟, 値徭役, 煩擾而暴發狂, 口鼻覺如蟲行..... <戴人> 曰, 肝主謀, 膽主決, 徭役迫遽, 財不能支, 則肝屢謀, 而膽屢不能決, 屈無所伸, 怒無所泄, 心火盤礴, 乘陽明金, 然胃本屬土, 而肝屬木, 膽屬相火, 火隨木氣而入胃, 故暴發狂, 乃置燠室中, 涌而汗出三次, 又以調胃承氣湯, 大下二十餘行.

동의보감에서의 癲狂에 대한 치료는 火, 痰火, 風痰의 병리로 보고 火·痰·風에 대한 치료를 한다. 그 원인이 火로 인한 것은 承氣湯이나 瀉心湯 製制로 주로 淸心熱하는 약물로 치료하고, 심하게 놀라 心을 傷하여 魂魄을 잃어버려 생긴 것으로 즉, 정신을 잃은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는 鎭心丹, 抱膽丸, 葉氏雄朱丸, 一醉膏을 사용하는데 처방구성이 광물성약물로써 주로 응급적 치료를 한다. '勞神' 즉, 과도하게 정신노동을 많이 하여 癲狂이 된 경우는 辰砂寧志丸, 寧志化痰湯, 養血淸心湯, 牛車肉을 쓰는데, 주로 心을 補하는 약물로 구성되어진 처방들이다. 그리고 癲狂의 주된 증상으로 不眠인 경우는 寧志膏와 辰砂散을 쓴다. 이외 癲狂에 대한 2개의 醫案이 있는데, 承氣湯劑로써 瀉下하여 치료한다.

이상 동의보감에서는 火·痰·風의 병리적 관점에서는 瀉를 하고, 心虛한 것이 원인이 되어 오는 경우는 補法을 사용하였기에 그 치료에 있어 補瀉法으로 뚜렷하게 대별할 수 있다.

☞ **婦人風邪癲狂方論**

○ 防風散; 治婦人風邪癲狂, 或啼泣不止, 或歌笑無度, 或心神恐懼, 或言語失常.

防風 茯神 獨活 人參 遠志去心 龍齒 菖蒲去毛 石膏 牡蠣各一兩 秦艽 禹餘糧 桂心各半兩 甘草三分 蛇蛻一尺.

☞ **産後癲狂方論**

○ 大聖澤蘭散 加辰砂 硏令極細 煎酸棗仁湯調下.

○ 何氏 癲癎方, 療産後因敗血及邪氣入心, 如見祟物. 大辰砂 一二錢重.

○ 蘇合香元

동의보감과 비교 고찰하였을 때, 良方에서는 風邪에 의한 癲狂을 강조하여 防風散을 사용하는데 이는 동의보감에서의 癲狂치료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다. 그리고 産後에는 주로 출산에 따른 감염으로 인해 정신을 잃는 것을 치료하기 위해 大聖澤蘭散, 何氏方의 癲癎方과 蘇合香元을 사용한다. 이는 동의보감에서의 癲狂과 비교해 그 경과가 일시적이라는 측면에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현대 의학적으로는 단기정신병적 장애(brief psychotic disorder)의 産後型[7]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邪祟

○ 邪祟, 宜用挑奴元, 辟邪丹, 殺鬼五邪丸, 紫金錠, 蘇合香元, 還魂湯.

동의보감에서의 邪祟는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진다는 응급적인 증상에 초점을 맞추어 挑奴元, 辟邪丹, 殺鬼五邪丸, 紫金錠, 蘇合香元, 還魂湯 등과 같이 救急하는 처방과 약물을 사용한다.

☞ **婦人夢與鬼交方論**

○ 茯神散; 治婦人風虛, 與鬼交通, 妄有所見聞, 言語雜亂.

茯神一兩半 茯苓 人參 石昌蒲各一兩 赤小豆半兩.

○ 桃仁圓; 治婦人與鬼魅交通.

辰砂 檳榔 當歸 桃仁各三分 水銀一分 麝香 阿魏麵裹煨 沈香各半兩.

☞ **産後乍見鬼神方論**

心主身之血脈, 心氣虛則敗血停積, 上干於心. 心不受觸, 隧致心中煩躁, 起臥不安, 乍見鬼神言語顚錯.

○ 調經散方; 沒藥 琥珀並細研 桂心各一錢 芍藥 當歸各一分 麝香研 細辛各半錢.

○ 柏子仁散; 治産後狂言亂語 皆由內虛 敗血挾邪氣攻心.

柏子仁 遠志去心 人參 桑奇生 防風 琥珀別研 當歸炒 生地黃焙 甘草等分.

○ 茯神散; 治産後血邪, 心神恍惚, 言語失度, 睡臥不安.

茯神一兩 人蔘 龍齒研 琥珀研 赤芍藥 黃芪 牛膝各三分 生地黃一兩半 桂心半兩.

良方에서의 邪祟의 증상과 같은 것은 '婦人夢與鬼交', '産後乍見鬼神' 에서 볼 수 있으며, 치료에 있어서는 먼저 婦人이 虛한 상태에서 風邪가 入한 것으로, 그 치료 또한 茯神散과 桃仁圓과 같이 心을 補하면서 醒心하는 처방과 약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産後에 心虛한 때 敗血이 작용하여 증상이 發하는 경우는 調經散方, 柏子仁散, 茯神散과 같이 補心血하고 祛瘀하는 처방과 약물로써 치료한다.

동의보감과 비교 고찰하였을 때, 증상의 차별점을 고려하여 救急의 의미보다는 虛한 상태에서 風邪나 瘀血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補瀉를 겸하여 치료한다.

4. 譫語

동의보감의 譫語는 여러 篇에서 보이는데, 각각 瘀血로 인한 경우는 桃仁承氣湯, 抵當湯을 사용하여 血熱을 치료하고, 失血過多하여 생긴 경우는 陶氏生地芩蓮湯으로 淸心熱하여 치료하고, 陽熱이 심하여 생긴 發斑이 兼症인 경우는 三黃石膏湯으로 祛濕熱하여 치료하고, 元氣虛弱한데 肝熱이 乘肺하여 譫語한 경우는 陶氏升陽散火湯으로 補瀉를 겸하여 치료한다. 이외 譫語가 많이 보이는 곳은 傷寒 熱證에서 나타나는데 柴胡連翹湯, 大柴胡湯, 玄參升麻湯(傷寒發斑), 六一順氣湯, 調胃承氣湯, 柴胡連翹湯, 辰砂五苓散을 사용하여 치료한다. 그리고 婦人과 관련하여서는 柴胡枳殼湯으로 孕婦가 傷寒이 있을 경우에 치료하는 내용이 있다.

☞ **産後狂言譫語如有神靈方論**

治療産後驚風, 言語亂倒, 如見鬼神, 精神不定者, 研好硃砂酒服, 下龍虎丹. 三圓作一服, 兼琥珀地黃圓服之.

○ 産後心虛, 敗血停積, 上干於心而狂言獨語者.

○ 産後臟虛, 心中驚悸, 志意不定, 言語錯亂, 不自覺知, 神思不安者.

○ 宿有風毒, 因産心虛氣弱, 腰背强直, 或歌

哭嗔笑, 言語亂道, 當作風痙治療.

○ 産後心虛中風, 心神恍惚, 言語錯亂.

○ 産後多因敗血迷亂心經而癲狂, 言語錯亂無常, 或暈悶者.

○ 産後感冒風寒, 惡露斬然不行, 憎寒發熱如疾, 晝日明了, 暮則譫語, 如見鬼狀, 當作熱入血室治之. 宜琥珀地黃圓及四物湯, 祇用生乾地黃加北柴胡等分煎服. 如不退者, 以小柴胡湯加生乾地黃如黃芩八兩, 煎服愈.

○ 琥珀地黃圓方

琥珀別硏 延胡索糯米同炒赤 去米 當歸 各一兩 蒲黃四兩 炒香 生地黃硏裂汁 留滓 生薑各三斤.

良方에서의 譫語는 産後에 心身이 虛한 상태에서 風寒邪가 入할 때 寒熱의 증상 및 여러 정신증상과 함께 나타난다고 한다. 그 치료에 있어서는 産後의 정신증상이 있을 때 사용하는 琥珀地黃圓 그리고 産後虛證을 바탕으로 한 四物湯 그리고 寒熱에 초점을 맞춘 小柴胡湯을 사용한다.

동의보감과 비교 고찰하였을 때, 동의보감에서도 傷寒에서의 譫語가 많고 婦人에서도 産後에 발생하는 傷寒證에 의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 치료한 것은 같다.

5. 眩暈

☞ 失血眩暈

○ 海藏曰, 一切去血過多, 則必致眩暈, 悶絶.

凡 崩中去血, 拔牙齒去血多, 金瘡去血多, 産後去血多, 皆有此證, 宜大劑芎歸湯.

○ 失血多, 眩暈不省, 宜生地芩蓮湯救之. 又全生活血湯 亦佳.

○ 血暈者, 皆因去血過多, 虛而成暈, 脈微澁也. 急用芎歸湯救之, 繼用加味四物湯.

○ 肥白人, 四君子湯 倍蜜黃芪 加半夏 陳皮 少加川芎 荊芥 以淸頭目, 黑瘦人 二陳湯 合四物湯 加片芩 薄荷 入竹瀝 薑汁 童便服.

○ 痰在上, 火在下, 火炎上, 而動其痰, 二陳湯 加酒芩 梔子 黃連 蒼朮 羌活.

○ 眩暈 有風, 有熱, 有痰, 有氣, 有虛, 有濕.

동의보감 眩暈에 있어 특징적인 것은 風,熱,痰,氣,虛,濕의 여섯 가지로 분류하고 각각 病因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것이다. 이밖에 痰火의 病理에 의하거나 肥白人, 黑瘦人으로 그 구분하여 치료한다. 그리고 失血에 의한 眩暈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는 주로 外傷이나 婦人의 崩漏나 産後出血에 의한 失血이 원인이 된다.

☞ 婦人虛風頭目眩暈及心眩方論

○ 養正丹; 治虛風頭眩, 吐涎不已. 蓋此藥升降陰陽, 補接眞氣, 非止頭旋而已.

黑鉛 水銀 硫黃硏 朱砂各一兩.

○ 鉤藤散; 治肝厥頭暈, 淸頭目.

鉤藤 陳皮 半夏 麥門冬去心 茯苓 茯神 人參去蘆 甘菊花 防風各半兩 甘草一分 石膏一兩.

○ 蔓荊子散; 治婦人風眩, 頭目昏悶煩疼, 言語蹇澁, 痰逆不下飮食.

蔓荊子 防風 羌活 川芎 羚羊角屑 枳殼 前胡 石膏 赤茯苓 麻黃去根節 荊芥穗各三分 細辛 甘菊花 白芷 藁本 旋覆花 甘草各半兩.

○ 四神散; 治婦人血風, 眩暈頭痛.

菊花 當歸 旋覆花 荊芥穗各等分.

○ 川芎散; 治風眩頭暈.

川芎 山藥 白茯神 甘菊花 人參各半兩 山茱萸肉一兩.

☞ 産後血暈方論

○ 淸魂散; 産後血暈, 心悶不識人, 神言鬼語, 氣急欲絶.

芎藥 甘草各一兩 丹參四分 生地黃汁一升 生薑汁 白蜜.

○ 産後血暈, 心悶亂, 恍惚如見鬼.

生益母草汁三合 根亦可 生地黃汁二合 童子小便一合 鷄子淸三枚.

○ 産後血暈, 狂語不識人, 狂亂.

童子小便五合 生地黃汁一合 赤馬通七枚 紅雪八分.

○ 獨行散; 治産後血暈, 昏迷不省, 衝心悶絶. 五靈脂半生半炒 二兩.

○ 奪命散; 治産後血暈, 血入心經, 言語顚倒,

健忘失志及産後百病. 沒藥 血竭等分.

良方에서는 眩暈을 虛風과 産後라는 요소로 구분하여 치료한다. 體虛한데 風邪가 入하여 발행한 眩暈에는 養正丹, 鉤藤散, 蔓荊子散, 四神散, 川芎散이 사용되는데 川芎散을 제외하고는 모두 眩暈을 風 특히 肝風에 의한 實證으로 보고 처방이 구성이 되어 있다. 産後의 眩暈은 '血暈'이라 하면서 敗血이 入하여 眩暈한다고 하고, 補血하면서 祛瘀活血하는 약물로 구성된 처방을 제시하였다.

동의보감과 비교 고찰하였을 때, 그 분류나 병인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婦人眩暈에 대한 동의보감의 치료관점은 대부분 出血에 의한 虛證으로 變證하고 치료 하였으나, 良方에서는 風邪와 産後에 敗血이 入하여 생기는 眩暈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주로 實證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즉, 婦人眩暈을 보는 관점이 동의보감은 虛證이 기본이 되나 良方은 實證이 기본이 된다.

반면 동일한 치료점도 있다. 동의보감에 風暈에 있어 '婦人에 쓰면 더욱 좋다'는 내용을 가진 芎窮散이라는 처방이 있는데 眩暈의 원인을肝風에 의한 것으로 보아, '婦人虛風頭目眩暈'의 病理와 상통하는 것으로 역시 동의보감에서도 婦人에 대해서는 風邪에 의한 眩暈의 病因을 인정하고 있다.

6. 頭痛

☞正頭痛

○ 頭痛通治, 宜川芎茶調散, 一字輕金散, 如聖餠子, 七生丸.

○ 婦人頭痛, 宜養血祛風湯, 四神散.

○ 養血祛風湯; 治婦人頭風, 十居其半, 每發必掉眩, 如立舟車之上, 皆因肝虛風襲故也.

當歸 川芎 生乾地黃 防風 荊芥 羌活 細辛 藁本 石膏 蔓荊子 半夏 旋覆花 甘草各五分.

○ 四神散; 治婦人血風眩暈頭痛.

甘菊 當歸 旋覆花 荊芥穗各等分 右爲末 每二錢 葱白三寸 茶末一錢 煎水調下.

☞ 偏頭痛

在右, 屬痰, 屬熱.....在左, 屬風, 屬血虛.

○ 偏頭痛, 在右 二陳湯 加川芎 白芷 防風 荊芥 薄荷 升麻

在左 二陳湯合 四物湯 加防風 荊芥 薄荷 細辛 蔓荊子 柴胡 酒芩.

○ 偏頭痛年久, 大便燥, 目赤, 眩暈者, 此肺乘肝, 氣鬱, 血壅而然, 宜大承氣湯, 下之.

○ 偏頭痛, 宜川芎茶調散, 一字輕金散, 川芎散, 芎犀元, 嚏鼻法.

○ 風寒頭痛, 風寒傷, 上邪從外, 入客於經絡, 令人振寒頭痛, 或風寒之邪, 伏留陽經, 爲偏正頭痛, 宜三五七散, 芎辛湯, 芎芷香蘇散, 如聖餠子.

○ 濕熱頭痛, 心煩頭痛者, 病在膈中, 乃濕熱頭痛也, 宜淸空膏, 小淸空膏, 又用吐法.

○ 厥逆頭痛, 當有所犯大寒, 乃至骨髓, 髓者, 以腦爲主腦逆, 故令頭痛, 齒亦痛, 乃厥逆頭痛也. 宜羌活附子湯, 厥者逆也, 邪氣逆上, 陽經而作痛, 甚則發厥, 頭痛, 齒亦痛, 宜白附子散. 厥頭痛, 卽腎厥巔頂痛, 不可忍, 宜玉眞丸.

○ 痰厥頭痛, 頭痛, 每發時, 兩頰靑黃, 眩暈, 目不欲開, 懶於言語, 身體沈重, 兀兀欲吐, 此厥陰, 太陰合病, 名曰, 痰厥頭痛, 宜服局方玉壺丸, 及半夏白朮天麻湯. 痰厥頭痛, 宜上淸白附子丸, 定風餠子, 芎辛導痰湯. 濕痰發則痛密無間, 宜三生丸, 或二陳湯 加南星 蒼朮 川芎 細辛.

○ 氣厥頭痛, 氣血虛, 而邪氣逆上, 爲頭痛. 頭痛, 耳鳴, 九竅不利, 兩太陽穴痛甚, 乃氣虛頭痛也, 宜順氣和中湯, 黃芪益氣湯. 血虛頭痛, 魚尾上攻而爲痛, 宜當歸補血湯, 加味四物湯. 氣血俱虛, 頭痛, 宜加味調中益氣湯, 安神湯. 大病後, 氣虛頭痛, 四柱散 加茶一撮 煎服. 如氣上不下, 厥而爲痛, 宜芎烏散.

○ 熱厥頭痛, 治頭痛, 煩熱, 雖冬天大寒, 猶喜風寒, 其痛漸止略來, 煖處. 或見烟火, 則其痛復作, 宜淸上瀉火湯, 防風散.

○ 濕厥頭痛, 冒雨傷濕, 頭重, 眩痛, 遇陰雨

則甚, 宜芎辛湯, 芎朮除眩湯.

동의보감에서는 부위 및 다양한 病因에 따라 두통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치료법을 제시하였다. 특히 婦人頭痛에 대하여는 風邪에 의한 眩暈이 동반된 두통의 치료법으로 養血祛風湯과 四神散이 있다.

☞ **婦人血風頭痛方論**

○ 川芎當歸散; 川芎一兩 當歸三分 羌活 旋覆花 細辛 蔓荊子 防風 石膏 藁本 荊芥穗 半夏麴 乾地黃 甘草各半兩.

○ 七生圓; 治男子 婦人八船頭風及一切頭痛, 痰厥, 腎厥, 陰厥, 傷寒, 傷風頭痛不可忍者, 幷皆治療. 川烏 草烏 南星三味幷生去皮, 半夏 川芎 石膏 白芷 等分

○ 芎辛湯; 治狀如前. 但發熱者不可服.

生附子去皮 生烏頭去皮尖 南星 乾薑炮 細辛 川芎各一兩 甘草三分

○ 玉眞圓方; 石膏煆 半夏洗 各一兩 硫黃二兩 硝石一分 幷研.

○ 硫黃圓; 治頭痛不可忍, 或頭風年深, 暴患, 無所不治, 服此除根. 硝石一兩 硫黃二兩.

○ 白附子散方; 麻黃不去根節 烏頭炮 去皮 南星炮 各半兩 白附子炮 一兩 全蝎五枚 辰砂研一分 麝香研 一錢 白殭炮 一分.

☞ **婦人傷丈夫頭痛方**

○ 桑栢皮湯; 療諸婦人傷丈夫, 苦頭痛, 欲嘔悶. 桑白皮半兩 乾薑二累 桂心五寸 大棗十二枚.

☞ **産後頭痛方論**

凡産後五臟皆虛, 胃氣虧弱, 飮食不充, 穀氣尙乏, 則冷虛熱; 陽氣不守, 上湊於頭, 陽實陰虛 則冷頭痛也. 又有産後敗血頭痛, 不可不知.

○ 黑龍丹

○ 川芎散; 治産後頭痛. 烏藥皮 川芎等分.

○ 芎附散; 治産後敗血作梗, 頭痛, 諸藥不效者.

大附子一枚 醶醋一碗 用火四畔炙透 礁醋令盡去皮臍 川芎一兩 幷爲細末 每服二錢 茶淸調下.

○ 一奇散; 治産後頭痛, 當歸 川芎爲細末.

良方에서는 '婦人血風頭痛方論'에서의 血風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두통과 '婦人傷丈夫頭痛方論'에서의 丈夫와의 性關係에 의한 두통에 대한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체로 實證에 해당되는 증상으로 판단하고 각각 川芎當歸散, 七生圓, 芎辛湯, 玉眞圓方, 硫黃圓, 白附子散方과 桑栢皮湯을 사용한다. '産後頭痛方論'에서는 産後에 몸이 虛한 상태에서 虛熱이 있거나 陽實할 때 각각 두통이 발생한다고 보고 川芎散, 芎附散, 一奇散을 사용한다.

동의보감과 비교고찰을 하였을 때, 동의보감이 다양한 치료방향을 설정하였는데 비하여 良方은 血風과 産後의 虛함이 기본적 발병 誘因으로 보고 접근하였다. 공통되는 부분도 있으니, 동의보감에서 婦人두통의 치료법으로 기재된 養血祛風湯은 良方의 川芎當歸散과 그 약물구성에 있어 분량에서의 차이 외에는 동일하고 또한, 四神散도 良方의 血風頭痛의 약물구성 내용과 비슷하다. 즉, 동의보감과 良方의 치료 내용이 '血風'이 원인이 될 때는 동일하게 접근하고 있다.

7. 中惡

○ 先用蘇合香元, 薑湯, 或溫酒化下三丸, 蘇省後用他藥, 太乙神精丹尤好, 且用朱犀散, 備急丸.

☞ **妊娠中惡方論**

○ 當歸散; 治妊娠中惡, 心腹疝痛.

當歸 丁香 川芎各三兩 靑橘皮二兩 吳茱萸半兩去梗湯泡三次 炒黑.

동의보감에서는 주로 救急의 목적으로 開竅醒神 및 鎭驚이 목적인 약물들로 구성된 처방들이 사용되었다. 良方에서는 産婦에 대하여 當歸散을 소개하면서 胎氣가 그 母에 영향을 주어 생긴 증상으로 판단하고 補血하면서 寒疝을 祛하는 溫熱한 처방으로 치료하였다. 이는 동의보감의 中惡이 정신을 맑게 하는 것을 중요시한 반면 良方에서는 産婦에 있어서의 虛寒함을 치료하는 것을 중요시한 것으로 보인다.

8. 煩悶

동의보감의 煩悶은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가슴(마음)이 답답한 증상을 말하는 것으로 가슴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神經症的 증상을 통칭해서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증상의 발생에 있어 관여하는 요인도 여러 가지인데, 그 가슴의 대표적인 장기인 心, 그리고 증상의 표현에서 나타나는 火熱, 그리고 막힌다는 의미의 氣滯나 瘀血 등을 원인으로 한 여러 증상이 나타난다.

煩悶은 임상적으로는 煩躁와 虛煩로 구분되어지는데 각각 實·虛證으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煩躁의 경우, 傷寒證에서 나타날 때는 黃蓮解毒湯, 白通湯, 白朮散, 芍藥甘草湯을 使用하여 치료하고, 陽毒發斑으로 煩躁하는데는 黑奴丸과 玄參升麻湯으로 淸熱發表한다. 이외 虛實구분이 명확한 경우에 있어 積熱, 痞氣의 병리로 인하여 煩躁할 때는 각각 凉膈散, 桔梗枳殼湯을 쓰며 虛火, 心虛해서 생기는 경우는 通明利氣湯, 五蒸湯과 淡竹茹湯을 쓴다.

虛煩은 橘皮湯, 人蔘竹葉湯, 淡竹茹湯을 쓰는데, 虛煩으로 인해 不眠이 있는 경우 寧志膏, 酸棗仁湯, 高枕無憂散, 眞珠母元, 獨活湯을 쓰며, 大病後에는 溫膽湯을, 熱로 인한 경우는 竹葉石膏湯, 酸棗仁湯을 쓰고, 傷寒의 誤治로 인한 경우는 梔子豉湯 烏梅湯을 쓰고, 霍亂 후에 오는 경우는 旣濟湯을 쓴다.

그리고 '治同嘈雜' 라 하며 懊憹에 관하여 嘈雜과 同治라고 하는데, 이는 懊憹의 증상 유발이 食鬱로 痰火가 생겨 이것이 心이 위치한 가슴에 작용하여 생기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오히려 傷寒의 誤治에서 나타나는 煩躁를 치료하는 것이 정확하다 할 것이다. 동의보감에서 제시한 嘈雜의 치료는 香砂平胃散, 消食淸鬱湯, 淸鬱二陳湯, 平胃分消飮, 朮連丸, 淸痰丸 등의 처방들을 사용하는데 그 구성약물은 대부분 脾胃에 대한 약물들이다.

☞ 婦人血風煩悶方論

○ 赤芍藥散; 治婦人氣血不和, 心胸煩悶, 不思飮食, 四肢少力, 頭目暈眩, 身體疼痛.

牡丹皮 白茯苓 赤芍藥 白芷 甘草各一兩 柴胡半兩.

○ 酸棗仁散; 治婦人血風煩悶, 四肢疼痛, 心神多躁, 吃食減少.

酸棗仁 赤芍藥 當歸 羚羊角屑 赤茯苓 紅花 生地黃各三兩 防風 羌活 川牛膝 麥門冬 桂心 川芎 地骨皮 甘草各半兩.

☞ 妊娠子煩方論

○ 竹葉湯; 治子煩. 防風 黃芩 麥門冬各三兩 白茯苓四兩.

○ 竹茹湯; 療妊娠煩躁, 或胎不安. 淡靑竹.

○ 麥門冬湯; 治妊娠心煩憒悶. 麥門冬 子芩 赤茯苓各一兩 柴胡 赤芍藥 陳皮 人參 苦桔梗 桑奇生 甘草 旋覆花各半兩 生地黃二兩.

○ 柴胡散; 治妊娠心煩, 頭目昏重, 心胸煩悶, 不思飮食, 或嘔吐.

柴胡一錢半 赤茯苓 麥門冬各一兩 枇杷葉去毛 人參 橘紅 甘草各半兩.

○ 黃連湯; 治妊娠子煩 口乾不得臥. 黃蓮去鬚.

○ 益母圓; 治妊娠因服藥致胎氣不安, 有似虛煩不得臥者, 巢氏爲子煩也. 知母一兩 洗焙.

☞ 妊娠煩躁口乾方論

○ 升麻散; 治妊娠壅熱, 心神煩熱, 口乾渴逆.

升麻 黃芩 人參 麥門冬 梔子 柴胡 茯神 瓜蔞根 犀角屑各一兩 知母 甘草各半兩.

○ 知母散; 治妊娠煩躁悶亂, 口乾及胎臟熱.

知母 麥門冬 甘草各半兩 黃芪 子芩 赤茯苓各三分.

☞ 産後餘血奔心煩悶方論

○ 療産後餘血不盡奔衝心, 煩悶腹痛. 川芎 生乾地黃 枳角 芍藥等分.

○ 金黃散; 治産後惡血衝心, 時發躁. 延胡索一兩 蒲黃半兩 桂心一分.

○ 沒藥圓; 治産後心胸煩躁, 惡血不快.

沒藥研 蠾裖 延胡索 乾漆炒 當歸 桂心 牛膝 牡丹皮 乾薑等分.

☞ **産後虛煩方**

○ 薤白湯; 治産後胸中煩熱 逆氣方.

薤白 半夏 甘草 人蔘各二兩 瓜蔞根三兩 麥門冬半升.

○ 竹根湯; 治産後虛煩方. 甘竹根細切 一斗五升; 內小麥二升 大棗二十枚 內甘草 麥門冬.

○ 人蔘當歸湯; 治産後煩悶不安方.

人蔘 當歸 麥門冬 桂心 乾地黃各一兩 大棗二十枚 粳米一升 淡竹葉三升 芎藥四兩.

○ 竹茹湯; 治産後內虛 煩熱短氣方. 甘竹茹一升 人蔘 茯苓 甘草各一兩 黃芩三兩.

○ 赤小豆湯; 治産後煩悶 不能食 虛煩方. 赤小三七枚 以冷水和 頓服之.

○ 蒲黃散; 治産後煩悶. 蒲黃 以東流水和 服方寸匕.

○ 尋常治諸虛煩熱者, 以竹葉石膏湯, 溫膽湯.

血風으로 인한 煩悶은 活血시키는 약물로 구성된 赤芎藥散, 酸棗仁散을 쓴다. 임신 시 발생하는 煩悶을 子煩이라고 하는데 安胎하거나 瀉火하는 약물들로 구성된 竹葉湯, 竹茹湯, 麥門冬湯, 柴胡散, 黃連湯, 益母圓을 사용하며, 煩躁症과 함께 熱로 인한 口乾이 심한 경우는 淸熱瀉火하는 升麻散, 知母散을 사용한다.

産後에는 餘血이 心을 압박하여 煩悶하는데 있어, 주로 祛瘀活血하는 약물로 구성된 金黃散, 沒藥圓을 사용한다. 또한 '産後虛煩方論'에서는 薤白湯, 竹根湯, 人蔘當歸湯, 竹茹湯, 赤小豆湯, 蒲黃散을 사용하여 虛證을 바탕으로 한 煩悶을 치료한다. 그리고 熱을 겸했을 경우는 竹葉石膏湯, 溫膽湯을 사용한다.

동의보감과 비교 고찰하였을 때, 특징적인 것은 동의보감에서는 '傷寒誤治'를 큰 원인으로 보고 치료하였고, 良方에서는 '子煩'이라 하여 胎氣의 불안정을 치료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밖에는 두 서적 모두 火熱에 대한 치료가 주된 내용이다.

9. 臟躁

○ 甘麥大棗湯; 治藏燥證. 甘草一兩 小麥三合 大棗七枚.

☞ **姙娠臟躁悲傷方論**

○ 大棗湯; 治婦人臟躁, 悲傷欲哭, 象若神靈, 數欠者, 此主之.

甘草三兩 小麥一升 大棗十枚.

婦人臟躁에 대하여 각각 甘麥大棗湯, 大棗湯으로 치료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처방의 구성약물은 동일하나 甘草와 浮小麥에서 분량의 차이가 있다.

10. 中風

○ 風癮者(一作懿), 由痰水制火, 閉塞心竅而不語, 熱者, 牛黃淸心元, 虛者, 導痰湯.

○ 中藏者, 痰塞昏冒, 宜至寶丹之類, 鎭墮, 或活命金丹, 牛黃定志丸, 祛風至寶丹.

○ 風中臟昏冒, 宜至寶丹, 牛黃淸心元.

○ 中風者, 多昏冒, 氣不淸利, 宜四白丹, 二參丹, 牛黃定志丸, 活命金丹, 祛風至寶丹.

동의보감에서는 卒中에 의한 응급적인 상황, 병의 깊이에 따른 中臟中腑 및 中經絡 그리고 병의 증상에 따라 감각 및 운동장애를 일컫는 偏枯 風痱 風痺와 정신증상을 의미하는 風癮(風懿)에 따른 다양한 병리에 따른 變證을 하고 그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다.

☞ **婦人中風方論**

○ 排風湯; 治男子, 婦人風虛濕冷, 邪氣入臟, 狂言妄語, 精神錯亂, 及風入五臟等證.

白蘚皮 白朮 白芎藥 桂心 川芎 當歸 防風 杏仁 去皮尖 甘草各二兩 白茯苓 麻黃去節 獨活各三兩.

○ 三生飮; 治卒中, 昏不知人, 口眼喎斜, 半身不遂, 咽喉作聲, 痰氣上壅, 無問外感風寒, 內傷喜怒, 或六脈沈伏, 或指下浮盛, 竝宜服之. 兼治痰飮, 飮厥及氣虛眩暈, 悉有神效.

生南星一兩 生烏頭去皮尖 生附子各半兩 木香一分.

○ 參蘇飮; 治痰飮停積胸中, 中脘閉塞, 嘔吐痰涎, 眩暈嘈煩, 忪悸噦逆; 及痰氣中人, 停留關節, 手足躄曳, 口眼喎斜, 半身不遂, 食已卽嘔, 頭疼發熱, 狀如傷寒.

人參 紫蘇葉 半夏 茯苓 乾葛 前胡各三分 甘草 木香 陳皮 枳殼製 苦梗各半兩.

○ 木香煮散; 治左癱右瘓, 幷素有風濕, 諸藥不效. 常服調氣, 進食寬中.

羌活 麻黃去節 各一兩, 防風三分, 白朮 陳皮 黑附子炮 南木香 檳榔 牛膝 大川烏炮 草豆蔻 杏仁去皮尖 人參 白茯苓 川芎 當歸 甘草 桂心 各半兩.

○ 附子理中湯; 治五臟中寒, 口噤, 四肢强直, 失音不語.

大附子炮 人參 乾薑炮 甘草炙 白朮 等分.

○ 加減小續命湯; 精神恍惚, 加茯神, 遠志. 心煩多驚者, 加犀角半兩.

麻黃去根節 防己 人參去蘆頭 黃芩 桂心 甘草 白芍藥 川芎 杏仁各一兩 附子炮 半兩 防風一兩半.

○ 小風引湯, 竹瀝湯

☞ **産後心驚中風方論**

○ 療産後心氣虛損, 卒驚狂語, 或歌哭嗔笑, 性氣不定.

上等銀一斤 桂心 甘草各六分 細辛四分 人蔘 生薑 遠志 茯神各八分 生地黃二十分 龍骨三分 棗子一個.

○ 療産後心驚, 中風. 防風 當歸 茯苓 防己 麻黃各八分 秦艽 人蔘 川芎 羌活 白蘇皮 甘草 白薇各六分 石膏十二分 竹瀝二升.

○ 療産後多虛羸弱, 若大汗, 利 皆至於死, 此重虛故也. 若患中風, 語謬, 昏悶不知人者.

人蔘 茯苓 羌活 桂心 大棗 遠志各十分 竹瀝一升.

○ 茯苓散; 療産後狂語, 志意不定, 精神昏亂, 心氣虛, 風邪所致.

茯苓(一方使茯神) 生地黃十二分 遠志 白薇 龍齒各十分 防風 人參 獨活各八分.

○ 療産後心虛, 忪悸不定, 亂語錯誤, 精神恍惚不主, 當由心虛所致.

人蔘 甘草 芍藥 當歸 生薑各八分 遠志 茯苓各十分 桂心六分 麥門冬 大棗各十二分.

☞ **産後中風恍惚方論**

○ 療産後暴苦, 心悸不定, 言語錯亂, 恍惚, 皆因心虛所致.

茯苓三兩 芍藥二兩 甘草 桂心 當歸各一兩 生薑六分 麥門冬一升 大棗三十枚.

○ 療産後心虛忪悸, 志意不定, 煩躁恍惚.

茯神 當歸 黃芩 麥門冬去心 甘草 人參 芍藥 酸棗仁 白鮮皮各三兩 大棗七個.

○ 天麻圓; 療産後中風, 恍惚, 語澁, 四肢不利.

天麻 朱砂 防風 羌活各一兩 殭蠶三分炒 乾蝎炒 白附子炮製 五靈脂各半兩 雄雀糞炒 牛黃各一分.

'婦人中風方論' 에 中風에 대한 다양한 치료법이 제시되고 있다. 특징적인 것으로 三生飮 치료 내용 중 '無問外感風寒 內傷喜怒'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中風의 병인으로 六淫외 七情內傷도 같이 그 발병의 원인으로 본 것과, 蔘蘇飮이 中風 치료 편에 있는데 이는 中風의 증상과 함께 '頭疼發熱'과 같은 傷寒症이 겸했을 경우 外感風邪를 치료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附子理中湯과 같은 경우 증상은 中風의 증상이나 원인은 寒邪에 的中한 것일 때 사용하는 것으로 良方에서의 中風은 外感邪에 의한 원인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産後中風의 개념은 동의보감에서의 그것과는 차이를 보이는데, 현대의학적으로 동의보감에서의 中風이 神經學的 증상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良方에서는 産後에 虛한 상태에서 風이 邪氣로 入하여 생기는 증상 중 특히, 정신증상이이 특징적으로 표현된 양태를 말하고 있어 임상양상에서는 그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그 치료에 있어서도 동의보감에서와 같이 감각 및 운동장애에 초점을 맞춘 치료보다는 정신증상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補心安神하는 약물로 구성된 처방이 대부분이다. 또

한 産後에 놀라 中風이 생긴 경우 銀을 主藥으로 사용한 처방은 독특하다.

그리고 '如中風若作中氣治之, 十愈八九; 氣中若作中風治之, 十無一生. 所以疑惑之間, 不問中風, 中氣, 首以蘇合香元, 麝香煎, 五積散.' 에서의 내용에서 보듯이, 婦人中風에 있어서 그 감별진단이 어려울 때는 먼저 蘇合香元, 麝香煎, 五積散과 같이 中氣에도 사용할 수 있는 처방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여성에 있어서는 실제 임상적으로 中風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실제 그 원인을 추적하고 그 진행경과를 관찰해 보면 다양한 神經症으로 인한 中氣로 진단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婦人中風의 그 개념이 동의보감 中風門에서의 정신을 잃고 여러 가지 감각 및 운동장애를 보이는 현대의학에서의 뇌혈관 장애의 개념과 함께, 七情傷에 의한 中氣 또는 外感風邪에 의한 증상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정신증상이 주도적이다.

Ⅳ. 結 論

부인대전양방을 동의보감과 비교 고찰하여 부인 정신장애의 치료의 특징을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婦人生理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동일 증상에 있어 동의보감과 그 치료가 일치하는 경우는 드물다.
2. 증상의 발생은 대부분 血風이 邪氣로 작용하고 心虛한 경우이므로, 치료는 祛風, 補心血而安神 한다.

3. 産後는 失血에 의해 血虛한 상태에서 감염에 해당되는 敗血 및 外感이 원인이 되므로, 치료는 補血, 祛瘀活血 및 祛風散寒한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을 볼 때, 정신장애의 치료에 있어 婦人은 병리적 특성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參 考 文 獻

1. 陳自明. 婦人大全良方. 서울:光山出版社. 2003:148, 170-3, 199-201, 214, 217, 283,287, 424, 535, 558, 561, 620, 720-1, 714, 725-6, 730, 732, 784, 787, 822.
2. 문석우. 여성 정신의학 개론. 서울:문장연구사. 2004:12
3. 대한산부인과학회. 부인과학 제3판. 서울:칼빈서적. 1997:388-9.
4. 김근우. 至言高論에 의한 韓醫學的精神治療에 對한 硏究.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2001;12(1):29-46.
5. 許浚. 東醫寶鑑. 서울:법인문화사. 2001:185-7, 197-201, 228-9, 490, 494-503, 557, 675, 729, 945-60, 1013, 1027-8, 1034, 1040, 1108-9, 113, 1152-4, 1399, 1555-6, 1642.
6.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東洋醫學硏究院. 1984:176.
7. 민성길. 최신정신의학. 서울:일조각. 2000:288.